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GMU, 릴리 재단 2차 100만 달러 그랜트 받아

“디지털 사역 현장에 필요한 실무적 교육 담당할 것”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가 릴리 재단이 후원하는 패스웨이 이니시이티브(Pathway Initiative) 2차 프로젝트에 선정 돼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GMU는 지난달 16일 릴리 펀드 2차 승인과 관련해 언론사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릴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연구 지원금으로 향후 3년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GMU는 100만 달러 그랜트를 통해 포스트 팬데믹 사회가 요구하는 신학교육 커리큘럼, 다문화 목회 리더십 양성, 학생과 지역 목회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 디지털 시대 교회의 요구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릴리 펀드 2차 승인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에 부합하는 IT 미디어 기술 교육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미디어 사역자가 없는 지역 내 소규모 교회들에 GMU 학생들을 단기간 파송 해 지역 교회를 섬기

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GMU가 3년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115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100만 달러를 릴리 재단에서 받은 그랜트로 충당하게 된다.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

수는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할 목회 환경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목회가 요구된다”며 “체계화된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실무 기술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

혔다.

구 교수는 이어 “정보 통신 교육을 비롯해 유튜브 편집, 교회 웹사이트 관리, 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용,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등 졸업 후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릴리 재단은 기독교 회중 지원과 목회자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 ATS에 소속된 북미 250여 신학교 가운데 미국 내 74개 신학교와 캐나다의 10개 신학교를 선정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연구 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GMU는 지난번 1차에 선정 돼 5만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2차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동욱 기자

“조선족 다음세대를 남북통일의 주역으로 세운다!”

중국조선족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연합회(회장 김학송 목사, 이하 조아연)은 지난 26일 LA비전교회(김대준 목사)에서 2021년 조선족 디아스포라 연합 성탄예배를 드렸다.

조아연 부회장 이훈 전도사의 인도로 드려진 1부예배는 김향란씨의 가야금 특별연주에 이어 백봉철 목사의 대표기도 후 조아연 회장 김학송 목사가 “성도의 5가지 확신 신앙”(살전 1:4-5절)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학송 목사는 구원의확신, 임마누엘의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변

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확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상화 목사의 헌금송에 이어 최동섭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이어졌다.

김학송 목사가 지난 3년간의 조아연 사역을 보고한 후에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목사는 조아연의 사역을 후원한 GC 네추럴의 대표 광문철회장과 신디추이 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격려사를 전한 광문철 회장은 “코비드로 힘든 한 해였지만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내년에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조아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진영 회장 (조선족협회회장)도 “2021년 힘들었지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조아연의 사역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 하나님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아연은 히브리서 10장 24-25절을 말씀을 기초로 LA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



2021년 조선족 디아스포라 연합 성탄예배 ©기독일보

의 꿈을 심어 남북통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요셉 세대로 세우는 비전으로 지난 2019년 1월에 발족된 단체다.

조아연은 2020년,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한인커뮤니티에 구제물자로 쌀과 라면 등 식품을 나누는 바 있다. 이인규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편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율령과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회 원 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에셀나무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大사기극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들의 자의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 되었다.
 교단 헌법에도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농락한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을 파헤친 이단감별사들의 해부 교과서!

“본 저서는 이단 정죄는 사적이며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단 헌법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하는 공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단 정죄 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여 올바른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필독서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사 중에서-

황규학 목사 서울대학교(중교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맥매스터 대학을 수학(M.A)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Florida Center of Theological Seminary(D.Min)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M.A)과 법대 박사과정에서 학위(Ph.D)를 마쳤다. 저서에는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중심은 주변으로 주변은 중심으로',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 나의 신앙유산답사기(전북편, 전남편), 장신대 죽은 신학의 사회 가 있고, 박사논문으로는 '교회법원시 재산에 대한 한, 미 비교연구'가 있다. 현재 로터워즈, 기독광보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기독교 서점과 교보, 영풍, 알라딘, 갯피플 등 온,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10. 6642. 4131

황규학 목사 지음
 값 35,000원

대한민국 경찰청 해외교경중앙협의회 설립, 회원 및 지부 확대

경찰청 해외교경중앙협의회 설립 선포식 및 회장 취임식이 오는 10일(월) 오전 11시, JJ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초대 회장으로는 우대권 목사(영광빛 복음교회 담임)가 추대될 예정이다.

해외교경중앙협의회는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훈련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미주와 해외 지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우대권 목사는 “해외교경중앙협의회가 미주 지역의 봉사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과 자연재해, 정신적 또는 사회적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



좌부터 윤석평 목사, 우대권 목사, 전모세 목사 ©기독교일보

을 주는 단체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교경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는 전모세 목사가 선임

됐다. 전 목사는 채플린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교육하고 커뮤니티와 단체간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미주 목회 경험과 오렌지카운티 웨리프 채플린 경험을 통해 해외교경중앙협의회가 지역 사회의 봉사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외교경중앙협의회 발족을 위해 LA를 방문한 윤석평 목사(대한민국 경찰청 교경협의회 해외선교분과위원장)는 “LA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 전역,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로 해외교경협의회 설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경협의회 회원에게는 모국 방문 시 신분을 보장해 주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이어 “LA의 경우 LA경찰국이나 카운티 셰리프와 협력 관계를 증진해 현지 교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2021 온라인 밀알의밤, 온세상에 예수님의 사랑 전해



2021 온라인 밀알의밤에서 이종희 단장의 진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찬희 학생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1 온라인 밀알의밤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했다.

“The First Noel”이라는 주제로 현장 공연과 온라인 방송 등 2가지 형식으로 개최된 2021 밀알의밤은 지난 5일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휠체어를 탄 바이올린 연주자’ 차인홍 교수(현 오하이오주 Wright State Univ. 교수 겸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메인게스트로 초청해 현장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진행됐다.

성탄절 저녁인 25일에는 차 교수의 연주 녹화 편집본과 함께 김에스터 자매가 인도하는 로컬전양팀 ‘M514’의 성탄캐롤, ‘남가주밀알수어찬양팀’의 수어찬양, 밀알 장학생 ‘이찬희’ 학생의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

기타연주 등이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방송 됐다.

올해 밀알의밤에서 차인홍 교수는 채리스 크리스천 챔버(Charis Christian Chamber)와의 협연으로 넬라판타지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향의 봄, 곧 오소서 임마누엘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클래식 곡들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밀알 장학생 이찬희 군은 “시각장애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껏 학업을 수행해올 수 있었다”며 “매년 장학금으로 생활과 학업을 후원해주신 밀알선교단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간증했다.

이종희 단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과 생업이 극도로 어려

운 상황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그리고 감동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참으로 의미있는 밀알의밤이었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이어 “2021 온라인 밀알의밤으로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2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신년 목회자 세미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과 설교”
1월 11(화)~12일(수)
갈보리 새생명교회서 개최



세미나 강사 박성일 목사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총회장 신원규 목사)는 오는 1월 11(화)부터 12일(수)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박성일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과 설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양일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원규 목사는 “복음전파를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2022년 한 해도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맡기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초대말을 전했다.

강사 박성일 목사는 1977년, 13살 나이로 부모를 따라 이민,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종교학 석사를 수료했다. 이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

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및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성일 목사는 1998년 필라델피아에 기쁨의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현장화 신학교육을 지원하는 다국적 신학 공동체 게이트 인스티튜트(GATE Institute) 원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 리폼드 신학교,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 합동신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CLC, 2009) “본향으로의 여정”(두란노, 2018)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두란노, 2020), “헤아려 본 기쁨”(두란노, 2021) 등이 있다.

김동욱 기자 문의 : 562-322-2919

**대한민국 경찰청 해외교경중앙협의회
설립 선포식 및 회장 취임식**


공동사무총장 윤석평 목사


취임회장 우대권 목사


공동사무총장 전 모세 목사

일시: 2022년 1월 10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국제기아대책 아프리카 난민 돕기 신년 평화 음악회 개최

KAFHI 20주년 기념
오는 1월 8일(수) 오후 7시 LA 만나교회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사무총장 정승호 목사, 이하 KAFHI)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난민 긴급구호를 위한 신년 평화 음악회를 오는 1월 8일(수) 오후 7시 LA 만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 456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개최한다.

KAFHI가 지원하는 동아프리카의 네 나라인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가 대표적이다.

케냐는 올해 최악의 가뭄으로 앞으로 몇 년간의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긴급구호식량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에티오피아는 이 코로나 와중에 내전으로 수십 만 명의 난

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우간다는 세계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서 수용 중이다. 부룬디는 현재 세계 최빈국으로 서구 세계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라 전체가 큰 난민 캠프와 같은 상황이다. 이 동아프리카에 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그곳을 20년간 지원하던 KAFHI가 신년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정승호 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고통 받는 세계 빈곤국가들은 방역도 백신도 모두 남의 일처럼 여겨지며 더욱 소외된 상태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울 때 함께하



구호식량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아프리카 마을 사람들 ©국제기아대책

는 사랑과 나눔이 참 평화를 가져올 희망의 씨앗이 된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신년 평화 음악회는 KMC 미주지역연회(임승호 감독)가 후원해, 세계적 음악대학인 피바디 음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평화 챔버 오케스트라가

아프리카 난민구호 후원을 위해 연주하게 된다. 음악회 입장은 무료이며 당일 후원금은 전액 국제기아대책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기아대책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Stay

at Field with the vulnerable people” 라는 지침 아래 빈곤과 취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긴급 구호와 구호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후원 및 참석 문의는 정승호 사무총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전화 703-473-4696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어요”



하트웨어 클럽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에코백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하트웨어 클럽 학생들은 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가 섬기고 있는 사우스베이 지역 노숙자 천막촌을 방문해 노숙자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에코백에 슬리핑백을 담아 선물했다. 하트웨어 클럽은 디자인과 페인팅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한인 고교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하트웨어는 그 동안 주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도시 환경을 미화하고 개선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이들은 벽화 작업 외에도 지역 사회의 독거노인과 어린이들에게 팬데믹에 필요한 생필품을 담은 케어패키지를 만들

어 선물하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로스 앤젤레스 드림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케어패키지를 제작하여 선물했고, 5월에는 가디나 시에 소재한 저소득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케어패키지를 만들어 전달했다.

박종희 목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틀린 말이 아니다. 백 번 듣는 것만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며 “교육에 있어 설명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이노니아 선교회는 독거노인, 환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비영리 선교단체다. 현장 학습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박종희 목사에게 (310) 508-2733 또는 koinoniamission@live.co.kr로 연락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신임회장에 이영수 장로 선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정기총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는 지난 27일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영수 장로를 선출했다.

이영수 장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려운 시간에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를 지탱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증경 회장님과 고문, 자문위원, 임원, 회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영수 장로의 사회로 최형호 장로(증경회장)가 기도했으며 이화룡 장로가 “옛 사람을 버리자”(엡 4:22-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록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CEO: 대영,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영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과 설교”

할렐루야!!

최일선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민교회를 흔히들 특수목회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 본향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아닐까요?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설교일 것입니다. 금번에 목회자요 신학자이신 강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과 설교라는 주제로 귀한 세미나를 갖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일선에서 헌직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이들에 걸쳐 총 6시간을 투자하시어 더욱 맛있고 은혜로운 설교의 삶을 누리며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신실한 목회자로 새해를 산뜻하게 출발 합시다.

미주복음주의 장로교회 총회
총회장 신원규 목사 드림



박성일 목사

한국에서 출생, 1977년에 13살의 나이로 부모를 따라 미주로 이민.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를 졸업(BA, Psychology, 1986).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Seminary in California) 종교학 석사(MAR, 1988)를 수료.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석사(MDiv, 1990) 및 조직신학 박사(PhD, 1998)학위를 받았다.

필라델피아지역 기쁨의교회를 1998년에 개척하여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섬김. 또한 현장화 신학교육을 지원하는 다국적 신학 공동체 ‘GATE Institute’ 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변증학 겸임교수.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Westminster Seminary in California, 한국 합동신학교 객원교수.

〈저서〉
“성정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CLC, 2009)
“본향으로의 여정” (두란노, 2018)
“C. 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 (두란노, 2020),
“헤아려 본 기쁨” (두란노, 2021) 등 다수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es in America

총회장: 신원규 목사
총 무: 전지승 목사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36

“1월에 보내온 이슬람 선교 보고(1)”

대망의 2022년도가 시작되었다. 작년 말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는 전 세대에 걸쳐 약 30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이 많은 영혼을 만나고 열매 맺고 승리의 복귀를 하였다. 오히려, 코로나로 세상은 다시 한번 온통 움츠리고 있는 때에 단기선교팀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총 16개 이상의 나라로 나눠서 다녀왔다. 물론 선교를 떠나기 전 충분한 훈련과 현지 교육 그리고 영적 무장도 철저히 시킨다. 방역 대책도 충분히 세우고, 2 단계에 걸친 코로나 테스트도 통과한 후 가게 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요르단 키즈 MIT팀의 선교 보고다. 엘레멘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된 16명의 어린이가 5명의 인솔 교사와 함께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이 평화(가명)선교사 팀의 지도를 받으며 다녀왔다. 요르단에는 생명나무 학교가 있다. 정부 인가를 받아 약 30명의 현지 학생이 입학하여 기독교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그 열매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현지에서도 칭송받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우리 선교사팀들의 영적 쾌거 중 하나다.

미주에서 간 키즈 MIT팀은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 초청 잔치를 벌여 여러 명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들 중 성경 공부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려는 친구들이 생긴 것을 기뻐했다. 선교지에서는 전 세대가 다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기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된다. 이슬람 법에 성인이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같은 친구가 전하는 것은 어찌하지 못한다. 청년 세대는 현지 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일반인들은 주로 가정 방문이나 공영 전도를 시작한다. 감사한 일은 이슬람 현지 주민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다. 손님을 맞는 자세가 매우 친절하다.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어느 곳을 가도 환영을 받는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선교 훈련 과정 중에 익힌 현지어를 기초로 현지 선교사들이 다시 한

번 가르쳐주는 언어, 문화 교육을 통한 전도 회화와 일반 회화 단어집들을 총동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에 익숙해진다. 필자가 처음 이슬람 선교지를 밟았던 15년 전에 비하면 현지인들은 많이 개방되었고, 영어를 하는 현지인들도 많아졌다. 서로 시간을 갖고 사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반감을 갖거나 배척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어린이팀들은 조를 나누어 현지 어린이들과 친구를 맺고 친구초청잔치에 초대한다. 두 지역에서 각기 한 번씩 잔치를 가졌는데 한 지역에선 60여 명이 다른 지역에선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열매가 컸다. 부모들도 궁금해하며 여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선교팀은 현지 친구들 앞에서 그간에 쌓아온 노래와 콩트, 태권도와 무용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 등의 복음 전도까지 어린이가 단기 MIT팀이다 말아서 진행한다. 그들이 집에서 응석만 부리는 어린이가 같지만, 선교지에서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다.

필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를 권한다. 선교를 준비할 때는 일체의 SNS 사용을 금한다. 스마트폰도 게임도, 인터넷도 스스로 끊고 음식만 금식이 아닌 SNS 금식도 실행한다.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줌으로 연합기도회를 하고, 현지 선교사님과 연락하여 언어 및 문화 교육을 4주간 받고 단기선교를 떠난다. (계속)

신약성경의 배경 “요세푸스의 기록에 등장하는 예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인물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유대인에 대한 실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 태어나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요세푸스는 필연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이슈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기독교인들의 행적을 요세푸스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더욱이 요세푸스는 잠시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시고 활동하셨던 갈릴리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생애’라는 책에서 자신이 갈릴리에 살았던 시절을 소개하면서 갈릴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에 204개의 도시와 마을이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는데 이는 다른 역사가들도 사실성에 동의하는 신뢰 받을 만한 자료입니다.

예수님 생애와 예수님 시대에 관한 성경 밖의 기록은 요세푸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세푸스의 갈릴리 지역의 기록과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기독교 교회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친 기독교 문서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기독교 문서로 보았을까요? 이는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단편적으로 인용하던 기독교 사회가 성급하게 요세푸스를 기독교 역사가로 단정 짓고 논리를 전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독교적인 역사 자료라고 보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

보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기독교 기원의 역사성을 보장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행적과 세례 요한과 야고보의 역사성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들이 기독교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선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각각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요세푸스가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각각의 민중 지도자로 이해하였습니다.

나아가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을 기술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보다 더 상세하고 더 긍정적으로 기록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세례 요한의 기록에 비하여 다소 냉랭하고 무덤덤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지만만다면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거나 그에게 신앙적 믿음을 가졌다는 주장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을 두 번 언급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요세푸스는 야고보의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예수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초대교회가 야고보를 불렀던 호칭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초대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던 반면에 요세푸스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요세푸스의 기록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당시 대제사장의 불법적 행위를 고발합니다. 요세푸스는 베스도 총독이 급사한 이후 베스도의 후임으로 알비누스 총독이 부임하는 과정에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불법적으로 의회를 소집하고 사형결정을 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기사입니다.

요세푸스는 “베스도가 죽고 알비누스가 부임하는 노상에서 있었으므로, 아나누스는 이를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회를 소집하고 그리스도라 불렀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몇몇 다른 사람들을 고발했다. 아나누스는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들을 돌려 쳐 죽이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야고보의 신앙이나 야고보의 선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의 순교를 기리거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 2세는 야고보와 그 밖의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처형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아나누스는 결국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행적,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을 기록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존재와 행적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예수님의 실존과 역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23주년 창립기념 및 임직예배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임직예배를 갖습니다. 부디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2년 1월 9일(주일) 오후 5시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213-749-4500

임직자 소개

- 증경장로 : 권오성, 김남기
- 장로장립 : 박상윤
- 장로피택 : 김철구, 박형규
- 안수집사명 : 강정학, 백승규, 성주호, 성 폴, 이혁진
- 권사임명 : 강제인, 고씨니, 김금슬, 김명선, 승해지, 우정인, 윤세라, 이빅토리아, 이선애, 이순례
- 권사취임 : 엄명숙

* 임직자에 대한 선물이나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기독일보 텍사스지사 창간 인터뷰 2 - 휴스턴한빛교회 정영락 목사]

휴스턴 지역에 맞춘 철저한 양육으로 '신앙의 요람' 자리잡아

미주 기독일보는 텍사스 지사 창립을 맞아 휴스턴, 오스틴, 달라스 등 텍사스 지역 주요 한인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두 번째 순서로 휴스턴한빛교회 담임 정영락 목사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전 연령이 고르게 분포된 균형 잡힌 목회를 펼치고 있는 정 목사는 휴스턴 지역에 맞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고, 평신도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세워 나가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인교회들에게는 현장 예배의 빠른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휴스턴기독교교회협의회 직전회장으로서, 교협이 지역교회들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복음화대성회 등 좋은 전통을 잘 유지해 나갈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휴스턴한빛교회 정영락 담임목사 ©기독일보

-휴스턴한빛교회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교회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목회 7년 차인데 그동안 목회의 주요점을 어떤 부분에 뒀나.

휴스턴이라는 특수한 목회적 상황 속에서 교회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곳에도 많은 한인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역에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고민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이자 제 목회철학이 됐다.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내린 가장 큰 사역의 방향은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이었다. 일단 예배는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예배에 포커스를 두지만 목회의 방향성은 양육이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성도들도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랐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우리교회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라는 마음으로 평신도에게 말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개념의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존의 제자훈련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제자훈련을 고민하고 도입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육 및 훈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제가 7년 전에 처음 부임하자마자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했고, 그 다음 큐티 훈련, 그 다음은 성경 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 3년 동안 매년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강의와 성경공부를 끝내고 본격적인 양육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장년들은 새 가족 반, 말씀교제, 제자훈련, 리더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평신도 지도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먼저 새 신자가 오면 '누리엘 반'을 거치도록 했는데 복음을 누리라는 의미다. 이 4개월의 과정 속에 일반 평신도 리더들이 새신자와 일대일 매칭으로 교육한다. 이 과정을 마친 새신자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소그룹 양육 과정을 통해 12주간 훈련을 이어나간다. 이후에는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한 달 동안 신앙서적을 읽게 하고, 또 6개월 동안 일기를 쓰게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영성이 민감한 권사님들이 리더

로 세워져 진행하고 있다. 교회 전체적으로 큐티 훈련과, 중보기도 훈련, 성경 훈련 등은 3년에서 5년 기간을 두고 반복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목회의 포커스를 양육에 맞춰왔고 이 큰 팀의 양육 사이클이 2번 정도 진행됐다. 이제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 전체적인 구상은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시니어교회, 청년교회, EM교회 등으로 각 부서가 하나의 교회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 중에 시니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니어 기도회나 시니어가 모이는 성경일기 모임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서로 성경을 읽고 카톡으로 소감과 기도제목을 공유하면서 영성발달에 큰 도움이 됐다. 우리교회 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

-목회에 특별한 원칙이 있다면.

성도들의 헌금내역을 안보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른다.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들은 보통 어떤 분이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됐다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듣고 있다.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만 헌금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헌금을 안 볼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이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 같은 내용의 목양칼럼을 쓴 적이 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을 뽑을 때도 헌금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 대신 동그라미, 세모, 엑스 세 가지로 나눠 이분이 교회에 온전히 소속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지만 체크하게 했다. 후보에도 헌금 부분은 작은 글씨로 인쇄가 돼 있다. 성도들에게는 이 헌금란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궁금해 하면서 큐티하듯이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금이 잘 기록이 됐는지 확인용이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직전 회장으로서는 휴스턴 지역의 교회 연합사역에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 임기를 맡았을 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잘 하지는 마음

이었고, 교협의 핵심 사역이 될까를 고민했다. 결국 교협은 현재의 교회들과 교역자들, 또 평신도들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역자 MT 등 여러 중요한 계획들을 세웠지만 코로나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계획들이 있다. 어느 지역이든 그곳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휴스턴 지역의 교역자끼리의 친교와 교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지역의 큰 한인교회들이 매우 협조적이어서 휴스턴지역 교회 연합사역이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휴스턴지역의 경우 복음화대성회가 가장 중요하기에 이 행사를 영적인 큰 변화의 계기로 삼고 덩달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들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본다.

복음화대성회의 경우 앞으로 지명도 있는 목회자를 계속해서 모시고 좋은 전통을 유지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감사도 미리 2-3년 전에 미리 섭외를 추진하고 최대한 좋은 목회자를 초청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믿지 않는 이들과 전도의 기회로 삼는 좋은 대회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주내의 한인교회들이 가진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주 내의 한인교회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먼저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일어나서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표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인데 한국교회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들을 잘 이어가는 한인교회가 되면 미국 안에 한인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에 잘 응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창한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트,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째 믿고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케를리
Call 714.345.4889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대학(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116281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p> <p>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h2 style="color: red;">광고 및 후원 문의</h2>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KWMA, 한국선교 10대 뉴스 발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2021년도 한국선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회관 5층 예배실에서 열린 2021년 한국선교 10대 뉴스 기자회견에서 KWMA 사무총장 강대흥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뉴스를 소개했다. 강 목사는 특히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선교에 KWMA가 중심적 역할로 섬기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KWMA가 선정한 2021년 한국선교 10대 뉴스.

①평신도 선교자원 동원운동
KWMA는 “교회의 선교적 주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들의 재능과 헌신이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건강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도들의 은사, 실력, 전문성 등이 선교적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선교단체가 전라적으로 선교하고 교회는 후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의 주제,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면 좋겠다고 하여 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②코로나를 계기로 바뀐 ‘선교사’에 대한 개념
KWMA는 “코로나를 계기로 선교사들이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생기면 국내에 나와서 먼저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지에 복귀하여 사역해야 한다는 개념이 새롭게 형성된 한 해였다”고 말했다.

③선교사 위기관리 복지기금을 위한 교회 부담금 결의
KWMA는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는 2021년 임법의회에서 선교사 위기관리를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교회가 예산의 0.3%를 2년간 부담하는 입법안을 결정했다”며 “이 법안을 기초로 모일 예상 기금 45억 원을 코로나 및 다양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사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④순직선교사 유족을 위한 장례 시설 지원(선교사 납골당과 선교사 묘원)
KWMA는 코로나로 순직하는 선교사들이 급증하고 선교사 부

모의 장례가 늘어나자 성도가 소유한 장묘 시설들에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8월 ‘선교사 납골당’과 12월 ‘선교사 묘원’사용을 허락받았다. 또 국내외 타문화권 선교사, MK, 선교사 부모들까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맺었다.

⑤GMS 첫 필리핀 지역선교부 분권(행정·인사·재정 자치 결의)
KWMA는 GMS(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가 필리핀 지역선교부에 행정 자치를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을 올해 주요 이슈로 꼽았다. KWMA는 “지난 12월 GMS 본부는 기존 ‘필리핀 지역선교부’가 행정, 인사, 재정, 배치 등을 기능적으로 결정하도록 현장 선교구조에 위임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⑥의료용 산소발생기 보내기 ‘숨 프로젝트’
KWMA는 코로나로 인한 선교지 의료시설 붕괴에 따른 선교사 응급상황을 돕기 위한 자구책으로 ‘의료용 산소발생기 보내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KWMA는 “이를 선교사만이 아닌 현지 한인



강대흥 사무총장이 KWMA 선정 한국선교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교회 및 한인과 현지인들에게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⑦KWMA의 선교계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KWMA는 “주요 선교적 이슈에 대해 KWMA가 선교협의회체로서 기능과 역할이 많았던 해였다”고 말했다.

⑧코로나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KWMA 회원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 선교사들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보내고, 선교지 원격 의료 상담과 자가격

리 숙소 지원, 선교사 장례 지원, 소천 선교사 유족 지원 등의 협력 네트워크들이 구축되어 회원단체와 선교사들에게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⑨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창간
KWMA는 “매월 24면 분량으로 발간하고, 인터넷(www.diasporanews.kr)을 통해 매일 새로운 정보를 싣고 있다”며 “이주민 선교의 주요 정보와 현황, 전국 교회와 사역 단체의 생생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⑩ ‘세이프 미션 백신 프로젝트’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복귀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미국에 와서 백신을 맞도록 돕는 세이프 미션 프로젝트가 구상됐다. KWMA는 “미국에서의 백신 접종을 위한 선교사의 항공비와 체류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들이 모금을 하여 항공권 및 숙식비의 일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이찬수 목사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형통한 한 해였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창세기 41:46-57)’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찬수 목사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마지막에 왜군이 철수하는 길목을 딱 버티고 서서 벌였던 해전이 노랑해전이였다. 이 노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호소했던 한 마디가 있었다”며 “그는 ‘일본 왜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도록’이라고 했다. 마음이 먹먹해졌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 젊은이들을 실망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못 가르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가나안 성도(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는 말이 우리나라 외에 또 있을까 싶다. 제

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잘 회복하고 은혜를 구해서 떠나갔던 성도들과 상처받고 나간 많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이런 애뜻함에서 시작됐다.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다음 세대가 보기에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제 목회 목표는 그것 하나뿐”이다. 작가는 우리 집 세 자녀들이 아빠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 폭을 넓히면 분당우리교회 많은 청년·청소년들에게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40, 50, 60대가 예수 잘 믿어도, 다음 세대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어떡하든 주일학교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살아나, 교회가



이찬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와 분당우리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고 했다”며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 한 해를 보내고 맞을 것이 아니

라, 이런 꿈을 꾸셔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 ①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②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대해선 “스물아홉 예비 담임목사님들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다. 진짜 제

대로 된 교회를 후배 목사들에게 보여주자”라며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회가 이런 거구나. 성도님들이 스물아홉 교회를 통해 행복해지고, 우리를 보면서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자. 큰 기도 제목 아닌가. 그래서 출발부터 세상과 차별화하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그는 “스물아홉 교회들의 개혁 초기 비용을 위한 헌금을 시작할 것이다. 몇 년이 지나면 그 헌금이 다시 스물아홉 교회의 공동 기금으로 모아져,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그래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몸부림은 치다 왔습니다’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의 통통성경 목회자 세미나

"미주 한인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시간·공간·인간을 通으로! 개인·가정·나라를 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通으로!
The Bible as One Story; to the cross, from the cross.

2022년 1월 20일(목) 10:30am~3:30pm

뉴욕 하크네시아교회 (담임 전광성 목사)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후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York
- 대상: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리더
- 등록비: 40\$ (점심제공, 100명 정원)
- 문의: 전광성 목사 kwang.s.jeon@gmail.com
허병욱 목사 tamuning@hotmail.com



김희복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전광성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대표



허병욱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총무단장

강사 통통박사 조병호



성경통독원 원장
하이기연구소
미국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V 교역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희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석사)
영국 애딘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신교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2004년 세계적인 독일 신학사전 RGG(Re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에
이티를 '세계기독교학생선교운동(Studentische Missionsbewegung)'을 등재
2006년 영국 왕립역사학회(Royal Historical Society)에 스피커로 초청되어 발제
2006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통(通)'을 최초로 말했다.
2007년 미래 목회자 1만명 초청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준비위원장
2008년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ReOrientation)' 공동대표
2014년 '통통성경 포물라(Formula for TongBible)'를 발표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2017 CONGRESS 스피커
2021년 글로벌처치 디버니티스쿨 BOARD OF GOVERNOR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2011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2005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일반신앙부문 최우수상 수상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2020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학부문 우수상 수상

저서 《통솔 주석》(전 2권, 《통하는 마지막 유월절, 첫번째 성찬식》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통통성경 길라잡이》(개정증보판), 《통통성경학교》, 《통통성경학교 워크북》
《消失的帝國》(中國 團結出版社/성경과 5대제국 중국판)
《성경과 고대전쟁》, 《성경과 고대정치》, 《신구약 중간기》, 《외우! 예레미야 70년》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등 50여종

편찬 《큰글자 일년일독 통독성경》, 《역사순 통통성경》

Great Commission을 위한 North AMERICA TONGDOK BIBLE NETWORK for the GREAT COMMISSION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창립예배 & 통성경 세미나

일시 2022.1.27(목) ~ 28(금) / 6:00pm ~ 1:00pm (1박2일)

장소 올랜도 아름다운교회 (담임 엄준용 목사)



Founder 조병호
(성경통독원 원장, 미국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대표 전광성
(하크네시아교회, NY)



총무단장 허병욱
(잭슨빌시온침례교회, FL)



고문 신현택
(뉴욕한인교회 중경회장)



고문 김영래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고문 김경환
(KIM Mission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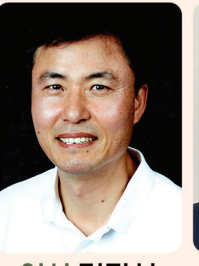
고문 김희복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사 류재영
(동산김리교회, GA)



이사 한충기
(매버그린장로교회, GA)



이사 김광섭
(삼버그한인침례교회, IL)



이사 김곤
(메수사랑교회, PA)



이사 정봉기
(위터타운장로교회, NY)



총무 박정호
(פל라한인침례교회, PA)



총무 조재철
(살트열린교회, NC)



총무 엄준용
(아름다운교회, FL)



총무 송명섭
(달라스샘물교회, TX)



총무 김경환
(버밍엄한인침례교회, AL)

<큰글자 일년일독 통독성경> 미국에서 [Tongdok Bible] APP으로 출시



편찬: 조병호 박사



Tongdok Bible 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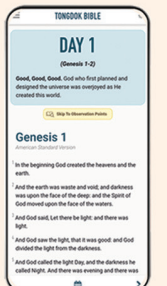
역사순 편찬

-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 KJV (King James Version)
-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추천해주신분들



Dr. James O Davis Rev. Leon Fontaine Dr. Leonard Sweet



365일로구성 5가지포인트로술보기

무료다운로드

• 아이폰 App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 설치
• 안드로이드 Play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 설치

GLOBAL CHURCH DIVINITY SCHOOL
PART OF THE GLOBAL CHURCH NETWORK
<https://gcds.tv>

BOARD OF GOVERNORS

ENGAGING, EQUIPPING & EMPOWERING

Members: JAMES DAVIS, DAVID MOHAM, DAVID SOBAPENA, KEN ULMER, LEN SWEET, VAN MOODY, STANLEY HOFWIJK, ALEX NITALA, JULIANE KUNZLE, BOUNGHO ZOH, EDDY LEO

오픈도어스, 10만권 성경 기금 달성...” 기독교 박해국에 보낼 것”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10만 권의 성경을 전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미국 오픈도어스는 페이스와이어(Faithwire)를 통해 최근 아프가니스탄, 북한,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10만 권을 보낼 기금 모금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과 제자 훈련 자료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성경 한 권당 7달러이다.

기금 모금은 지난달 23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후원자들에게 발송하며 시작됐



성경을 읽고 있는 미얀마 기독교인. ©오픈도어

고, 30일 ‘기빙 튜즈데이(Giving Tuesday)’ 행사를 중심으로 모금이 이뤄졌다.

당시 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

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또한 가장 큰 후원자들이 기부된 금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챌린지 그랜트(Challenge grant)’

방식을 도입해 모금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오픈도어스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이번 모금이 “미국 지부가 여태 본 것 중 최대의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경 배포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미국인들이 이 도전에 맞서서 일어서는 모습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스는 1955년 설립자이자 선교사인 브라더 앤드류가 자신의 폭스바겐 비틀 차량에 성경 책을 숨긴 채, 성경 반입이 금지된 공산주의 국가들을 향하면서 시작했다.

커리 회장은 “오늘날, 세계에

서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곳에 성경을 밀반입하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현대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의 손에 성경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불안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정부나 무장세력이 대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사본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라며 “우리는 경험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이스라엘서 2000년 된 갈릴리 유대교 회당 발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제2성전 시대(기원전 516~서기 70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교 회당 유적이 두 번째로 발견됐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 유적은 12일 갈릴리해 북서쪽에 위치한 미그달(Migdal)에서 하이파 대학의 진만 고고학 연구소의 감독 하에 발굴작업 중이던 고고학자 예후다 고브린에 의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유대교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기능하던 시기에 같은 정착지 내에서 두 개의 회당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발견이 당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에 변화를 줄 것”이라 기대했다.

진만 고고학 연구소 연구원인 아디 에를리히는 성명에서 “(기준에) 고고학자들은 성전이 아직 서 있는 한 회당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했다”고 밝혔다.

발굴을 도왔던 하이파 대학의 디나 암삼롬 고르니 교수는 “두 번째 회당의 발견이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의 일상적 신앙생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며 “공부나 토라 읽기, 친목 모임을 위한 전용 건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굴된 회당은 2000년 전 당시의 주거 단지에서 발견되



제2성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유대교 회당이 발견됐다.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Israel Antiquities Authority)

었으며, 산업 구역에 있던 첫 번째 회당과 불과 200미터 거리에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시 회당이 “정착촌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지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회당은 현무암과 백악으로 지어졌으며, 본당과 2개의 쪽방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은 여섯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는 형태이며, 그 중 2개의 기둥과 돌로 만든 벤치가 발견됐다. 내벽은 석고로 덮여 있으며 형형색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본당의 남쪽 끝에 있는 작은 방에는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용도로 추정되는 선반이 위치해 있다. 또 회당에는 도기 촛대, 옥도로 만든 유리그릇, 반지 등을 포

함해 정화 의식에 사용되는 석제 기구들이 출토됐다.

미그달 지역에서 최초의 고대 회당은 2009년 고고학자 아브살롬 고르니에 의해 발굴됐다. 이 건물에는 당시 성전에서 유대교 전통 의식에 사용되는 큰 촛대인 메노라(memorah)를 연상케 하는 일곱 갈래로 나뉜 촛대기둥이 새겨져 있었다.

미그달은 고대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로, 신약성경에 예수의 모친인 막달라 마리아의 출생지로 언급되어 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IAA)은 향후 몇 주 안에 회의를 열어 유적지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납치범들에게 복음 전한 나이지리아 목사 피살

몸값 추가 지급되지 않자...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서 지난달 납치된 복음주의 목회자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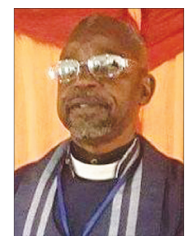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우사기독교재단은 12일 “지난 11월 8일 운관칸티 마을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서 납치된 다우다 베이터 목사가 최근 살해됐다”고 밝혔다.

그의 교회는 하인나라이 지역 최초의 복음주의 교회였다.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카두나주 지부 회장인 조셉 하야브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주의 풀라니 목자들이 ECWA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베이터 목사의 몸값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살해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터 목사의 아내는 지난 11월 18일 남편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을 만났다가 역시 인질로 붙잡혔으나 12월 6일 풀려났다. 이후 며칠 만에 베이터 목사가 살해됐다.

한 소식통은 데일리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납치범들이 목사의 몸값 지불을 압박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다우다 베이터 목사. ©페이스북

고 전했다.

베이터 목사의 아내는 “남편이 납치범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해 주었다.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북동부에서 수백만 명을 추방하고 과격화된 목자들이 중부 농업 공동체 수천 명을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이들은 증가하는 살인 및 납치 건수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리비아 덕분에 나이지리아 무장 세력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몸값을 노린 납치 행위가 수익성 높은 산업이 됐다고 지적한다.

나이지리아는 2021년 미국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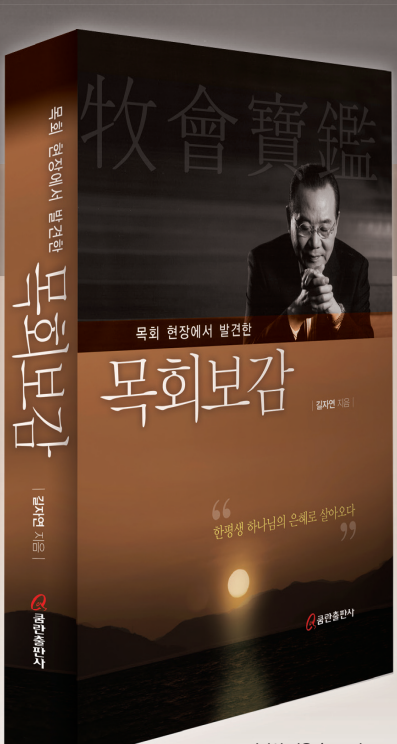
牧會寶鑑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김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언”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김자연 저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목회(목회) 김자연 목사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절충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오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숱한 질곡을 겪어오면서 기독교복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복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량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지량스런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리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김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금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금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ranc.com
• 서울 중구 이화동길 6 ☎ 02-747-1004(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요한복음 3:1-1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1.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

A. 니고데모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산헤드린 공의회원=유대 최고 회의의원)이였으며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선생”으로 호칭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지식과 권력을 겸비한 지도층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왜 밤에 야음(夜陰)을 타고 방문 했을까? 그 당시 일반 서민 대중들의 인기가 예수님께 집중되는 상황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자신들의 입장(立場)이 위축(萎縮)되어감을 느끼게 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피해의식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심(憎惡心)이 노골화(露骨化)되고 있는 실상(實狀)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불필요한 오후나 구설(口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몰라보는 연고로 다소 소극적인 태도였을 것입니다.

B. 니고데모의 세속적 지혜(世俗的 知慧)의 한계(限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온 동기와 이유는 본문 2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간에 행하신 이적(異蹟)기사(奇事)를 보았거나 들은 것으로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추측(推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22-24에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됐을 때 무리가 다 놀라 다윗의 자손(그리스도)이 아니냐 하되,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낸다고 비방(誹謗)했던 모습과는 상반(相反)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0-21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중략)...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으니 그 누구도 세속(世俗)적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강조하신 이유

A. 거듭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다면서 예수님을 제법 아는 척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단언(斷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26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셨으니 물과 말씀은 동의어(同義語)가 되기 때문에 물은 곧 말씀이란 뜻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이면서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수’그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21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셨으니 예수님만이 회개하는 죄를 사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6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중략)...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하심을 통하여 아담의 원죄(原罪)와 각자의 자범죄(自犯罪)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 받으며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B. 니고데모의 세속적 지혜(지식)의 미련함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하시는 핀잔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니고데모의 영적 지혜(지식)은 너무나 유치(幼稚)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靈的)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肉)의 입장에서 반문하기를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영적교훈과 니고데모의 육적반응(肉의反應)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은 거듭남의 의미를 육체적인 것으로 성년(成年)의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스러운 반문(反問)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본문 5~7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중략)...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하심을 보아 영적 교훈을 육적 의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3. 성령으로 난 사람

A. 성령의 존재와 역할

로마서 8: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하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십니다. 요한복음 14: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중략)...생각나게 하시리라” 했는데 성령의 역할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12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중략)...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므로 성령을 받은 것은 죄를 용서 받은 증거(행 2:38)이며 하나님 자녀 된 보증(롬 8:16)도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B.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다가 천국 가게 됨

갈라디아서 5:24-26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중략)...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激動)하고 서로 투기(妬忌)하지 말지니라” 하셨으니 성령 받은 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빌립보서 3:20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 하심 따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받을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라” 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보면 죄인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세속적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방법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 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방문한 처음에는 영적 지혜가 무식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심 따라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 보았기에 요한복음 7:50-51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니라”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입장을 두호(斗護)하는 말도 했고 요한복음 19:39-40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중략)...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들라” 했으니 니고데모도 그 사이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귀하의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 지혜나 본인 수준의 상식으로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체험과, 감동이 있을 때 아무리 난해(難解)하다고 했던 말씀도 믿어지게 되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육적기대(肉의企待)의 세상 가치(價値)보다 영적 소망의 가치를 위해 희생적 봉사(奉仕)와 헌신적 전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질 신앙이 곧 성령으로 난 사람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기독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강준민 칼럼

대나무처럼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신 까닭은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쓰레기통을 정기적으로 비우는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과거를 떠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과 지혜는 남겨 두십시오. 하지만 쓰레기와 같은 과거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과거는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만 비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쓰레기통도 비워야 합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통보다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면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는 비우지 않으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악취가 나는 쓰레기도 그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고 제 자리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면 쓰레기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를 밟아 버리고 흠을 덮는다면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비료가 되어 땅을 기름지게 만들면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됩니다. 기름진 땅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쓰임새를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버릴 줄 알고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비울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쌓아둔 물건 중에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물건은 비워도 됩니다. 가슴 뛰게 만들지 않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지 않은 물건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매듭을 잘 짓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나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가 주는 교훈 때문입니다. 모 소라는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4년 정도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니다. 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뿌리를 키웁니다.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갑니다. 5년째가 되면 대나무 밑에서 죽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일단 죽순이 돋기 시작하면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미터 이상 자라게 됩니다. 사실 6주 만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숨어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5년째 되었을 때 죽순이 돌아난 것입니다. 대나무는 미래를 준비하고 가꾸면서 때가 되면 힘차게 뻗어나갈 줄 압니다. 대나무에게서 우리는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지

혜를 배웁니다. 대나무에게서 보이지 않은 뿌리를 가꾸는 지혜를 배웁니다. 대나무에게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대나무는 매듭을 지어가며 자랍니다. 대나무의 지혜입니다. 그냥 쪽 위로 뻗어 오르지 않고 매듭을 짓고 새롭게 성장하고, 또 다시 매듭을 짓고 새롭게 성장합니다. 그런 까닭에 대나무는 폭풍이 불어와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유연합니다. 굽힐 줄 알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굽힐 줄 알지만 꺾이지 않는 대나무의 유연함을 좋아합니다. 너무 강하고 거치면 부러집니다. 반면에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 것은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새롭게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계 21:5).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렘 31:22).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렘 33:2). 하나님은 우리도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새 노래를 부르길 원하십니다(시 96:1). 새 시를 쓰고 새

책을 읽고 새 책을 쓰길 원하십니다. 새 그림을 그리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새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사 40:31).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됩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거룩한 기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엡 3:20).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잠 9:10).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신 소원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십시오(빌 2:13). 하나님이 새해에 큰 은혜를 한 분 한 분 위에 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연재 '삶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몽족선교
박성원 목사

그 순간 나는(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며 뉘이 반쯤 나가 하나님을 원망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고 단단히 결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제로 드릴 고기를 주셔야 번제를 드린 제물을 드린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릴 소든 양이든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는데 하

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내게 번제로 드릴 소는 이미 네게 있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북한에서는 석유가 없어서 농기계도 가동하지 못했다. 그런 탓에 소는 사람 10명보다 더 귀한 몸이었다. 만일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소를 잡는 사람은 이유도 묻지 않고 사형이 집행되는 시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작업반에 한 마리밖에 없는 황소를 잡아서 바치라는 것이다. 그 말은 내 목숨을 바치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었다. 나는 어찌

나 화가 나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버렸다.

“좋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바치라면 제물로 바치겠으니 이제 더 이상이 마음에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오직 복만 주십시오.”

그리고는 당장에 황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기세로 허둥거렸다. 하지만 그날 나는 황소를 잡지 못했다. 순임이 엄마 이야기가 농장당위원회를 거쳐 군과 도에까지 보고되어 그날 저녁 반장으로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기 때

문이다. 이 사건은 급히 군사위원회에 회고되었고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죄를 내게 뒤집어씌워 사형을 언도할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북한 도처에서는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터졌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납치해 죽인 후에 그 인육을 파는 장사치들까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 비참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무보수 노동 처벌을 언도한 뒤 나를 풀어 주었다. (계속)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ti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

- 환자님이 초진부터 수술, 시술관리까지 진보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어떤 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 방사선 진단을 위해 촬영영상에 포함하고 있는가?
- 강철이 함유되고, 수중 높은 다량한 수술 시제가 있는가?
- 임역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동희 원장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한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이스라엘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는데도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면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으로 세상은 또 다시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정과 자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래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십니다.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에 빠진 과부를 만났을 때 가까이 가서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고 절망은 한순간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가서서 “달리다굼, 소녀아 일어나라” 외치시니 살아났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가진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시간이 넉넉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호경기가 되고 형편이 좋아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직분이나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주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넌 것은 모세의 컨디션이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

병이여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복지가가 뜰거나 큰 기업이 스폰서를 서주어서 된 일이 아니라 광야에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면 어떤 절망이라도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남들보다 더 깊은 어려움과 고난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때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향한 첫 노래

무슨 일을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시무식이 있고 종무식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시작과 마무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델교회에서도 저의 스케줄은 연초보다는 연말이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연말마다 각 사역팀이 마무리하는 모임들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소원과 꿈을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또한 시작에 그 중요한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만큼 모든 일의 시작은 전체를 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

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도 시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떡잎만 보아도 나중에 성장해서 만들어질 나무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베델교회는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며, 한 해 동안 만들어갈 나무의 떡잎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델교회의 전통은 새해마다 주제곡을 작사 작곡하여 일 년 내내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새해 모토와 함께 주제곡이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12월 16일, 우주선 제미니(Gemini) 6호를 타고 있던 월터 슈라 (Walter Schirra)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와 토머스 스탠퍼드 (Thomas Stafford) 두 우주인은 다른 우주선 제미니 7호와의 랑데부라

는 역사적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쉬라는 갑자기 하모니카를 꺼내 들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스탠퍼드는 방울 밴드를 흔들며 장단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NASA 직원들은 감격하며, 최초로 사람이 우주에서 연주한 곡으로 기념하며, 그때 연주한 하모니카와 방울 밴드를 지금도 워싱턴 D.C 항공우주박물관 Air and Space Museum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두 악기가 박물관에 보관된 것은 신세계 우주를 향한 인류의 출발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신대륙이 강국의 정복욕으로 각축장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주 공간을 향한 첫걸음은

전쟁과 싸움보다는 크리스마스 캐럴로 상징되는 평화의 메시지가 바라는 것이겠지요.

올해의 모토는 “더 깊이, 더 높이 Go Deeper, Go Higher!”입니다. 새해 첫 주간 진행될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는 항상 한 해의 열매를 가뭇할 수 있는 영적 떡잎을 심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향해 인류가 처음 연주했던 캐럴처럼, 새해를 향한 우리의 노래는 [더 깊이, 더 높이]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펼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높이 임하는 목표로 믿음의 날개를 펼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를 향한 성도님들의 노래를 담아, 힘껏 불러 봅시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율연자 Rate 윌 보험회사,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중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기독교 베스트셀러 키워드는 #기도 #가정, 그리고 #고전

지난 한해 많은 기독교 도서들이 출간됐다. 그것들 중 올해는 어떤 책들이 주목을 받았을까? 갓피플몰과 교보문고가 집계한 올해 기독교 베스트셀러 10권을 아래와 같다.

갓피플몰=▲따라하는기도 ▲부모 면허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 ▲잠근 동산 ▲난생처음 성경공부: 마태복음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똥은 우물 ▲페이지 처치 ▲봉한 샘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

교보문고=▲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목적이 이끄는 삶 ▲5가지 사랑의 언어 ▲순전한 기독교 ▲감사 ▲따라하는기도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기도의 자리로 ▲잠근 동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두 곳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와 '따라하는기도' 그리고 '잠근 동산'이다. 주로 기도과 가정에 대한 책들이 순위권에 들었다. 특히 교보문고에서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순위 안에 든 것이 눈에 띈다. 새들백교회 릭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나 팀 켈러 목사의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처럼 해외 유명 목회자의 책들도 사랑받았다. 기독교일보는 올해 기독교 베스트셀러 도서들 중 일부를 아래 소개한다.

두 서점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 중 <따라하는기도>는 장재기 목사(전 지구촌교회)가 집필

했다. 이 책은 너무도 하고 싶은데 뭐라 말할지 몰랐던 기도, 말을 배우듯 기도도 따라 하며 배우길 원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저자의 유튜브 채널인 장재기TV에서 업로드한 <따라하는기도> 시리즈를 책으로 엮어냈다.

저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인데 기도를 따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가능하다'라고 답해주고 싶다. 기도는 하늘의 언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양양 우는 부르짖음에서 온전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말도 늘고 기도도 자라간다"라며 "무엇보다도, 틀린 기도를 하더라도 넉넉히 헤아리며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청자이며 부모와 스승이 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어떤 기도든 솔직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수많은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31개 영상의 기도문이 담겨있다. 책 내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관련 기도 영상을 함께 들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기복신앙이나 틀린 기도가 아닐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일단 기도의 첫발을 내디디길 격려한다"라고 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는 이재철 목사(은퇴 목사)가 집필했다. 이 책은 저자가 네 명의 아들들을 키운 지혜와 그의 자녀 교육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저자 이재철 목사는 "작은 일상에도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나의 네 아이들은 나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다.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서, 부모의 말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때로 울며 자신의 의지를 꺾는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아이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며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시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잠근 동산>은 제시카 윤 목사(미국 구세군 샌프란시스코재활원교회)가 집필했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간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만남의 체험, 영적으로 나는 대화의 내용,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경험했던 사역의 내용 등을 간증의 형식으로 담아냈다.

<부모 면허>는 박인경 강사(한국심리상담연구소)가 집필했다. 이 책은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초보 부모, 자녀와 좀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아 괴로운 청소년 부모,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주고픈 크리스천 부모, 성도를 양육하고 길러야 하는 사역자와 사모를 위해 쓰여졌다.

저자는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이 '학부모'로만 살아간다. 부모에게는 양육자, 상담가, 코치, 영적 리더 등 하나님이 맡기신 다양한 역할이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모 됨'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또한, 부모에게도 '면허'가 필요하다"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가진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고, 큰 권한을 위임하셨다. 그렇기에 부모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하며, 이것이 바로 '부모 면허;의 기본 의미이다"라고 했다.



2021년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도서 (왼쪽부터) 잠근동산 & 따라하는기도

로 알아야 한다. 또한, 부모에게도 '면허'가 필요하다"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가진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고, 큰 권한을 위임하셨다. 그렇기에 부모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하며, 이것이 바로 '부모 면허;의 기본 의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성경적이고 전문적인 부모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관계의 소통의 면허를 취득하길 소망한다. 또한 초보 부모는 물론 자녀와 대화가 도무지 안 통하는 사춘기 자녀의 부모에게 이 책이 확실한 도움이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릭 워렌 목사(미국 새들백교회)가 집필했다. 이 책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목적 선언문으로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더 이상 성공하는 삶이 아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 쓰여졌다.

워렌 목사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

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라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물과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책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란다"라고 했다.

<기도의 자리로>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칭송받던 C.S 루이스 교수(1898-1963)가 집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와 관련된 글을 모아 만든 책이다.

저자는 "기도는 자동판매기가 아니며, 마법이 아니다. 기도한 대로 받는 사람들은 일조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로, 즉 왕이신 하나님께 말발이 서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이런 저런 사건이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기에 일어났는지 여부를 물어선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예외없이 기도 응답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목적은 물론, 구체적인 방법과 빠지기 쉬운 함정, 분별해야 할 사함, 세속 시대 속에서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둘러싼 모든 이슈가 담겨 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길 바란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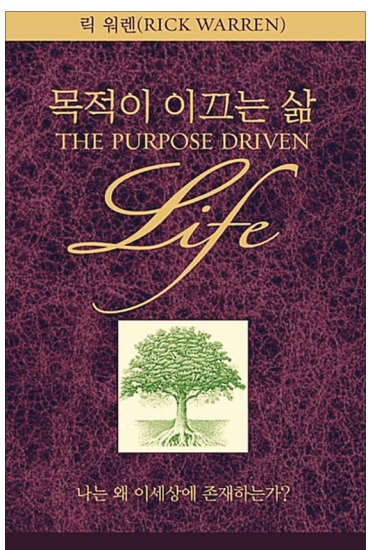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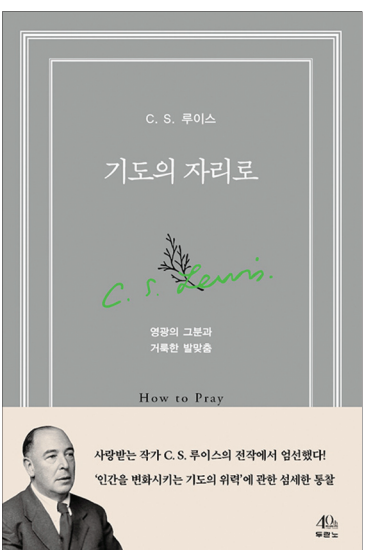
도서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도서 『부모 면허』



도서 『목적이 이끄는 삶』



도서 『기도의 자리로』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러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말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

<스파이더맨> 마블 이번 흥행 전략, 주술 기댄 추억팔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열기설기 있는 멀티버스 이론 영화에서 멀티버스 연결하고 조작하는 주된 방편, 주술 새로 등장하는 히어로, 능력 참신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 추구 가짜 초월 서사, 슈퍼히어로 콘텐츠



올 연말 최대 기대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초월과 종교: 초월을 묘사하지 만 종교와는 무관한 슈퍼히어로 서사

최초의 현대적 슈퍼히어로 콘텐츠는 1936년 처음 발표된 '팬텀' 시리즈이다. 당시에는 단독 코믹북이 아니라 신문지상에 연재 되는 만화였다.

그리고 2년 뒤, 20세기형 슈퍼히어로 캐릭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등장했다. 이 시기는 미국이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대공황의 여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 조짐이 목격되던 흥흥한 시절이었다.

이 시기 이전까지 서구 사람들은 사회 전체를 뒤트는 대규모의 불안과 고통이 닥치면 먼저 교회를 찾았다.

미국은 유럽보다 신앙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사회적 격변으로 불안과 고통, 소외가 만연할 때마다 전국적 부흥운동이 일어나 신앙의 정진을 되새기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나갈 힘을 얻었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기에는 교회의 역할이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광란의 20년대(Roaring 20s)'라 불리던 시기를 거쳤기 때문이다.

1910년대와 1920년대를 거쳐 미국 사회에 신앙의 혼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세대가 양산됐고, 이들이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활동의 주역인 30-40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미국 사회 세속화의 시대 흐름을 빠르게 읽어낸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슈퍼히어로 콘텐츠였다. 사회의 격변과 경제적 침체,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공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는 가상의 초자연적 캐릭터를 창안해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초자연성에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기독교적 요소를 비롯해 온갖 신화와 전설, 그리고 오컬티즘을 차용했다.

결국 이들 작가, 만화가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초월의 새로운 표상을 제시해서 현실의 고달픔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이나마 위로를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원래 교회가 담당하던 일이었다. 유치한 것으로만 취급받던 하위문화 장르에 역할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콘텐츠는 기독교 신앙, 신화, 주술, 미신, 전설 등 온갖 종교적 요소를 차용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사람들을 종교적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는 그 궁극적 목적이 초월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값싼 위로와 흥미 충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다.

◆초월과 환상: 참신성의 한계에 이른 마블 스튜디오의 환상적 신화

이번에 개봉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 작품들의 흥행 부진을 단번에 털어내는 듯하다. 관객과 평단의 평가도 대부분 호평 일색이다.

그런데 이번 <스파이더맨> 신작이 호평을 받는 주된 이유는 기존 소니 픽처스 단독 제작 <스파이더맨> 시리즈(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부작) 요소들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끌어왔다는 것이다.

토비 맥과이어, 앤드루 가필드가 연기하는 기존의 두 스파이더맨이 함께 출연하는 데다, 해당 시리즈에 등장했던 모든 빌런들까지 차례대로 등장한다. 이는 기존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관람했던 관객들에게 커다란 반가움을 느끼게 해준다.

결국 이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최대 흥행 요인은 기존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기억하는 관객들의 추억에 호소하는 추억팔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이어졌던 소니와 마블의 합작 스파이더맨 시리즈 서사 분위기를 좀 더 무겁고 진중한 국면으로 끌고 간다는 점도 있다.

마블 작품을 오래 접한 팬들일 수록 마블 작품에서 가벼운 활극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진중한 서사를 찾기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어쨌든 이런 '추억팔이'를 가능하게 해준 영화 속 설정은 당연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을 열기설기 이어주는 멀티버스 이론이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멀티버스를 연결하고 조작하는 주된 방편은 주술이다.

결국 주술이라는 설정에 갖든 추억팔이가 이번 <스파이더맨> 신작의 주된 흥행 전략이고, 그 외 서사의 참신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봉착한 서사상의 한계를 보여준다. 기존 서사들을 획기적으로 압도할만한 참신한 요소나 캐릭터를 창작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새로 등장하는 히어로, 빌런,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앞으로의 서사를 이끌어갈 핵심 능력인데

이 부문에서 참신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화나 전설처럼 초월을 다루는 환상 서사들은 참신성을 잃으면 곧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인과적 현상들의 궤를 능가하는 초월적 체험을 다루어야 한다. 기존의 인과성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서사가 계속 창안되어야 한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일종의 현대적 신화 혹은 전설이라고 본다면, 소니 픽처스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그동안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구축해온 설정, 배경, 캐릭터 등은 그 내적 인과성을 이룬다.

이번 <스파이더맨>의 신작 서사는 거의 대부분 기존에 구축된 인과성 안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점이라면 단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새로운 망각의 주술을 시도한다는 것뿐이다. 멀티버스 간 이동이라는 요소도 <닥터 스트레인지>나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는 기존의 설정과 질서를 능가하는 초월의 요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초월 요소가 인간의 종교적 감각을 일깨우는 필수 계기인데, 최근 마블 작품들은 주술이나 신화 같은 종교적 요소들을 차용하면서도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월적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

이전까지 마블 영화 캐릭터들은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초월, 그리고 기술문명이 주는

힘이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힘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초월적 고찰 노력이 반영되어 있었고, 이런 노력들이 작품에 참신성을 부여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에 들어서서 이런 고민이 상당부분 희석되고, 오히려 기존 작품들의 매력을 이어갈 새로운 세계관 형성에 급급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리고 그 시도들은 거의 다 실패했고, 결국 과거 시리즈의 세계관과 설정, 캐릭터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겨우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것은 마블 스튜디오가 더 이상 캐릭터와 설정의 초월성을 가지고서는 기존처럼 매력있는 서사를 창안하지 못한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마치 4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기존 그리스-로마 신화가 생명력을 잃고 기독교 신앙에 밀려난 것과 유사한 국면이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면 끊임 없는 새로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인간의 사고력으로는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흥행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두는 경우,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슈퍼히어로 콘텐츠와 같이 인간의 근원적이고 사실적인 종교성을 관통하지 못하는 환상 기반 초월 서사의 명백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ew Star Carol Realty & Inv.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arole Lee.

2022 WMU '예배학 석사과정(MAWS)' 주최 **예배 포럼**

팬데믹 이후 다시 세우는 예배

예배, 리셋! Worship, Reset!

- 1차 01.14 Fri. 16:00 "예배 예술을 통한 리셋" 그렉 쉬어 Greg Scheer 교수
- 2차 03.25 Fri. 16:00 "온전한 회복의 예배 공동체로 리셋" 김섭리 교수
- 3차 06. 03 Fri. 16:00 "예배의 역사를 통한 리셋" 레스터 루스 Lester Ruth 교수
- 4차 10.21 Fri. 16:00 "루틴 워십, 삶의 예배로 리셋" 가진수 교수



| 내용 |

예배로 다시 시작하라!

| 대상 |

목회자, 예배 사역자, 찬양 인도자, 신학생, 청년, 예배와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100명)

| 참가방법 |

신청자에게 Zoom 참가번호 공지

| 주관 |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MA in Worship Studies)

| 신청 및 문의 |

Tel: 213)388-1000

Email: wmuinfo@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